

40년전 심은 가로수 잘려나간 까닭...

외도동 수정마을 주민들 빛나무 등 식재... 주민센터, 낙엽·주차민원에 '짜뉜'

약 40년 전 주민들이 마을안길에 심은 가로수를 낙엽이 많이 발생하고 주차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이 무차별 베어내 비난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도의회에 출석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벽면녹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은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는 지난 10일 외도1동 수정동 주택가 마을안길 약 90m 구간에 식재된 빛나무와 향나무, 담팔수 등의 가로수 10그루를 베어냈다. 외도동은 한 조정회사의 명의로 현장 담벼락에 부착된 공사 안내문을 통해 5월 10일과 13~17일 6일간 이 일대에서 가로수 제거 및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가로수 제거 공사는 수정동 소재 남북방향의 마을안길인 '수정길'과 '수정2길'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10일 공사를 통해 수정길에 식재된 가로수 10그루가 먼저 벌목됐다. 외도동이 베어낸 가로수는 지난 1981년 수정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심은 빛나무와 향나무, 담팔수 등으로 그동안 둘레가 최소 90cm에서 최대 140cm에 달하는 아름드리로

성장했다. 수정동 주민 이모씨는 "1981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 제주시에서 나무 굵기까지 정해주고 주민 20명이 자금을 거출해 담벼락에 녹화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후 2000년을 전후해 토지구획사업을 진행할 땐 행정에서 보호대까지 설치했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차별 베어내버려 제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분

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외도동 관계자는 "나무가 커지면서 낙엽이 많이 발생하고 주차선도 침범하면서 청소와 주차가 어려워지자 주민들로부터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베어낸 각각의 나무들이 식재된 주택 소유 주민들에게 모두 동의를 얻어 잘라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 서모씨는 "등사루소에서 집으로 찾아와 모든 주

민들이 불편해 하고, 사고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잘라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돈을 주고서라도 심어야 할 판인데 40년간 키운 나무를 왜 자르느냐고 항의해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외도동은 마을주민들이 반발하자 13일 계획한 2일차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낙엽과 주차불편 민원이 제기되자 외도동주민센터가 잘려낸 수정마을안길 가로수.

읍·면·동 업무처리 '제멋대로' 들통 도감사위, 수당 부적정 지급 등 119건 적발

28명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시 읍·면·동 13곳과 서귀포시 읍·면·동 9곳을 대상으로 대항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귀포시는 8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주

시의 경우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등 총 20건이, 서귀포시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법정부과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하거나 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 등 총 15건이 각각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 관련 접수 민원을 처리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야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

증 설정 시 재정보증 금액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하거나 일부 회계 관직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채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시 점용한 자에 대해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과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해야 하는데도 부과기한이 경과된 이후로부터 짧게는 31일에서 길게는 120일이 지나서야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행정상 81건, 신분상 13명, 재정상 8149만원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서귀포시장에게는 행정상 38건, 신분상 15명, 재정상 1134만원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대학교 6월 4~11일 후기대학원 신입생 모집

제주대가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25명으로 석사과정 73명,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52명이다. 모집 대상은 국어국문학과 등 일반과정, 학·연 협동과정 및 의공학, 한국학 등 학과 간 협동과정의 신입생이다.

지원에 따른 첨부서류는 6월 18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전형은 7월 9~11일 학과별 면접고사 등을 거쳐 이뤄지며 합격자 발표는 8월 2일이다. 문의 대학원 행정실 (064)754-2153.

백용기기자 haru@ihalla.com



제주중앙고는 지난 8일 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생활규정 변경건을 놓고 대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생활규정 학생들이 바꾼다

제주중앙고 최근 전교생 참여 대토론회 열어 교복·용의복장·휴대폰 사용 3가지 안건 토론회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 '학생생활규정'을 학생들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기 위한 학교 공론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일부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의원회의가 아닌 전교생이 참여해 토론회를 열고 학교 민주주의를 경험해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제주중앙고등학교는 지난 8일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생활규정 변경'에 대한 3주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일부 학부모, 교사들도 참여했지만 800여명의 전교생이 참여해 소수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학생회가 먼저 학교에 제안해 마련됐다.

이날 대토론회의 안건은 교복, 용의복장,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것으로 학생회측에 따르면 보다 편안하고 간편한 교복 착용법은 없는지, 화장과 머리카락 염색 등

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건지, 휴대전화를 (학교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1학년부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수렴됐다.

대토론회에 앞서 학생들은 2주 전부터 학급회의에서 학생들 간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진척성 학생회장(3학년)은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 다른 학교도 (대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철성 교장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대토론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안건과 관련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2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도내 유치부 6개팀 156명, 초등부 6개팀 15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9회 전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치부 대상은 '해결사 119'를 부른 예원유치원 합창단(지도교사 김경애)이, 초등부 대상은 '119사랑방'을 부른 인화초등학교 합창단(지도교사 김명진)이 각각 차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재+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KFS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똑똑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